



포장전문가간의 교류 활성화 필요

중소기업 포장컨설팅 분야에 관심

정현철 / 신일팩 대표

정현철 신일팩 대표는 90년 해태제과, 92년 제일제당, 98년 신일팩을 창업하기까지 줄곧 포장 관계의 일을 해왔다. 이번 포장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유는 첫 째, 국내 최고 포장 관련 자격증이고 두 번째로 포장 분야에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싶었고, 셋 째로 자기 스스로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격의 소감을 밝혔다.

“제일제당에 근무 할 당시에 ‘햇반’ 포장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최고의 포장기술이 집약된 상품이었습니다. 그 때 느낀 건데 포장 산업은 개발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산업인데 기업에서는 포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라며 포장기술사에 응시하게된 동기를 피력했다.

금번 포장기술사에 합격하면서, 우리나라 포장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이론이나 신기술은 과감하게 소개하고 포장



전문가간에 혹은 업체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했다.

“Open-mind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하우를 자신만 알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포장 기술사 자

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도 포장기술사 자격증이 단순한 자격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포장 관련 단체에서도 포장 기술사들에게 각종 메리트를 부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앞으로의 바람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현재 신일팩을 통해 각종 포장컨설팅 사업 및 외국 자료의 분석을 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포장 표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연포장 분야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정 대표는 앞으로 부족한 중량물 포장에 대해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37세의 나이로 포장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정현철 대표 같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나라 포장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K]